

『靈樞·五十營』에 대한 研究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姜庚來 · 陸相元*

The Study on the 「*Oh Sib Young*(五十營)」 of the 「*Young Chu*(靈樞)」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Kang, Gyung-Rae · Yuk, Sang-Won

The first chapter of the *Oh Sib Young*(五十營) explains that the length of the measurement of channels(脈度) is sixteen zhangs two cheoks(16丈2尺). The second chapter says that nourishing gi(營氣) circles around(周行) the whole body 50 times during 13,500 times of breathing in twenty-four hours. The third chapter explains that the total length reaches 810 zhangs(810丈) if it circles around 50 times.

Through construction of word, comparison of annotation, investigation, literal translation, free translation, conclusion analysis of these ancient writing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second chapter, "twenty five bun(二十五分)" should be modified into "twenty bun one li six ho(二十一分一釐六毫)" or "twenty bun and the rest(二十分有奇)", "forty bun(四十分)" should be changed into "forty bun sam li two ho(四十分三釐二毫)" or "forty bun and the rest(四十分有奇)", and "five su twenty bun(五宿二十分)" should be modified into "five su twenty one bun six li(五宿二十一分六釐)" or "two hundred ten bun and the rest(二百十分有奇)" in order to clarify their meanings.

Key Words: *Oh Sib Young*(五十營), the measurement of channels(脈度), nourishing gi(營氣), nutrient principle(營氣).

I. 서론

「五十營」은 『靈樞』에는 卷八 第十五에 있고, 『甲乙經』에는 卷一 「氣息周身五十營四時日分漏刻第九」에 있으며, 『太素』에는 卷一二 「營五十周」에 있고, 『類

經』에는 卷八 「經絡類二十六」중 「一萬三千五百息五十營氣脈之類」에 내용이 각각 編述되어 있다.

本篇은 營氣가 經脈中을 1晝夜에 50회 운행하는 이치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五十營」이라 이름을 붙였으며¹⁾, 주로 經脈의 氣가 전신을 운행하는 상황을

* 교신저자: 육상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Tel. 063-290-1565, yuksw@woosuk.ac.kr

1) 郭霽春. 黃帝內經靈樞語譯. 서울. 일중사. 1992. p.16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설명하고 있다.本篇은 의미상 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장은 脈度の 길이가 16丈2尺이라는 것, 제2장은 營氣가 一晝夜에 13,500번 호흡할 때에 전신을 50회 周行하는 것, 제3장은 50營을 運行하면 총 길이는 810丈이라는 것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의학의 經絡理論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原文이 古文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板本마다 다른 글자가 있으며 각 注釋家들의 見解差異가 많으므로, 여러 板本을 대조하여 校勘하고, 各家의 注釋을 比較·考察하여 가장 알맞은 注釋을 바탕으로 國譯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밝혀내고자 본 論文에 着手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본 편은 내용별로 3장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注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吐를 달았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の『黃帝內經靈樞』를 底本으로 하였고, 章節의 分類는 任의 『黃帝內經 章句索引』을 중심으로 景岳의 『類經』과 山東中醫學院의 『校釋』 등을 참고 하였다.

나. 懸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校勘에 인용한 書目은 <表.1>과 같다.

라.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한 音과 訓을 택하였다.

마. 較註는 <表.2>의 注釋書에서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모았으며, 모은 注釋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國譯하고, 그 注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함축된 뜻까지 이해되도록 各家의 注釋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아.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 로 표기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표기하였고, 較註과정에서 중점적으로 翻譯한 注釋에는 ‘◎’로 표기하였다.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難經	難經
2	黃帝針灸甲乙經	甲乙經
3	備急千金要方	千金
4	黃帝內經太素	太素
5	類經	類經
6	黃帝內經靈樞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7	校註語譯	日本田中清左衛門本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陳璧疏·鄭卓人	1962	靈樞白話解	白話
6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III. 본 론

제1장 脈度の 길이

【原文】

黃帝曰 余願聞五十營奈何¹⁾하노이다 岐伯이 答曰 天周²⁾(1)二十八宿²⁾요 宿三十六分이니 人氣行一周면 千八分³⁾이라 日行二十八宿⁴⁾하고 人經脈⁵⁾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⁴⁾이 周身十六丈二尺하야 以應二十八宿하고 漏水³⁾下百刻하야 以分晝夜라

2000. p.150.

【校勘】

- 1) 奈何: 『太素』卷十二 營五十周에는 이 2字가 없다.
- 2) 天周: 『甲乙經』卷一第九에는 ‘周天’으로 되어 있다.
- 3) 千八分: 『太素』에는 ‘一千八分’으로 되어 있다.
- 4) 日行二十八宿: 『太素』에는 ‘日行二十八分’으로 되어 있고, 『甲乙經』에는 이 6字가 없다.
- 5) 經脈: 『甲乙經』에는 ‘經絡’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周: 週也, 둘레를 돌 수
- (2) 二十八宿(이십팔수): 古代天文學의 별자리 이름으로, 東方에 角亢氐房心尾箕, 北方에 斗牛女虛危室壁, 西方에 奎婁胃昂畢觜參, 南方에 井鬼柳星張翼軫이 있다.
- (3) 漏水(누수): 고대에 떨어지는 물로 時間을 계산하는 기구, 즉 물시계를 말한다. 『史記·太倉公傳』에 漏水下百刻이라 하였다.
- (4) 二十八脈: 12經脈의 좌우 24經脈과 陽蹻, 陰蹻, 督脈, 任脈을 합하여 28脈이라고 하였다.

【較註】

[1] 五十營

馬·景岳·校釋은 “이 篇은 經脈이 주야로 50회 운행하는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營은 운행함이다. 五十營이란 50도를 말하니 經脈이 낮에 25도, 밤에 25도를 운행하므로 五十營이라 한 것이다.”²⁾라고 하였다.

[2]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楊은 “이것은 대략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 그 실상은 36분이다. 人氣行一周는 晝夜로 周行하는 것이다. 千八分은 그 실제로는 1000분인데, 36 全數를 곱하기 때문에 8분이 남는다. 宿마다 거리가 35분과 7분의 5라면 1000분이 된다.(35와 7분의 5에 28수를 곱하면

2) ●馬: 此篇은 詳言經脈之行이 晝夜有五十度之數也라 營者는 運也라 五十營者는 謂五十度也니 經脈之行於晝者二十五度요 行於夜者二十五度 故로 曰五十營이라 ○景岳: 五十營者는 卽營氣運行之數니 晝夜凡五十度也라 ○校釋: 五十營은 指營氣在周身運行하여 每晝夜爲五十周次라

1000이 됨)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下文에 脈氣가 한 바퀴 운행할 때에 태양은 20분을 운행하고, 脈氣가 두 바퀴를 운행하면 태양은 40분을 운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인체는 밤낮으로 50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1000분임을 알 수 있다.(20分×50周=1000分)³⁾라고 하였고,

馬·景岳·張·白話·校釋은 “28宿는 古代 天文學의 별자리 명칭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4방으로 나누어 매 방위마다 7개의 별이 있는데, 東方의 七宿는 角亢氐房心尾箕며, 北方의 七宿는 斗牛女虛危室壁이며, 西方의 七宿는 奎婁胃昂畢觜參이며, 南方의 七宿는 井鬼柳星張翼軫이니 모두 합하여 28宿가 된다. 그러므로 天周二十八宿란 天體의 運行이 28宿의 사이를 環周하는 것이다. 人氣行一周란 經脈의 氣가 하루 밤낮에 人身을 50차례 주행하는 것이고, 1008分은 태양이 28宿를 운행하는데 每宿의 거리가 36분이므로, 서로 곱하여 1008분이 되는 것이다.”⁴⁾라고 하였다.

3) ○楊: 此는 據大率言耳니 其實弱三十六分이라 (人氣行一周는) 謂晝夜周라 (千八分은) 其實天分耳니 據三十六全數勝之 故로 勝八分也라 宿各三十五分七分之五則千分也라 知必然者는 下云氣行一周에 日行二十分하고 氣行再周에 日行四十分(原本에 三十分으로 되어 있으나 下文을 근거로 고침)이라하니 人晝夜五十周 故로 知一千分也라

4) ○馬: 伯言人身經脈之行는 上合於天星之度하고 下合於漏水之下者也라 天周二十八宿는 卽角亢氐房心尾箕斗牛女虛危室壁奎婁胃昂畢觜參井鬼柳星張翼軫也라 按本經衛氣行篇에 云歲有十二月하고 月有十二辰하니 子午爲經이요 卯酉爲緯며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이니 四七二十八宿라 房昂爲緯요 虛張爲經이라 是故로 房至畢爲陽이요 昂至心爲陰이니 陽主晝하고 陰主夜者가 是也라 每宿折爲三十六分이라 (積而推之면 十宿得三百六十分이니 二十宿得七百二十分하고 八宿에 三八得二百四十分하고 六八得四十八分이니 共得一千八分이라) ○景岳: 以周天二十八宿로 宿三十六分相因하면 共得一千零八分이니 人之脈氣晝夜運行一周도 亦合此數라 ○張: 周天二十八宿而一面七星이니 子午爲經이요 卯酉爲緯며 房畢爲緯요 虛張爲經이며 房至畢爲陽이요 昂至心爲陰이며 陽主晝하고 陰主夜라 每宿約二十六分이니 其乘一千零八分이라 人氣晝夜五十營하고 行二十八宿之一周하여 計一千八分이라 ○白話: 天周二十八宿는 是指天體의 運行環周于二十八宿之間이라 二十八宿는 是古代天文學名辭니 分周天之星四方各有七宿하니 東方은 爲角亢氐房心尾箕요 北方은 爲斗牛女虛危室壁이요 西方은 爲奎婁胃昂畢觜參이요 南方은 爲井鬼柳星張翼軫이니 合共二十八宿라 自房至畢十四宿는 爲陽主晝요 自昂至心十四宿는 爲陰主夜라 ●校釋: 二十八宿는 是古代天文學의 星座名稱

[3]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楊은 “태양이 28분 운행하면 인체의 經脈이 한 바퀴 운행하므로, 8분이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上下 文章을 헤아려보면 알 수 있다.(原文에 ‘日行二十八分’으로 되어 있음) 28經脈의 氣가 전신을 주행하는 것이 위로 하늘의 28수와 상응하며, 물시계의 度數와 밤낮의 구분도 모두 보편적이다.”⁵⁾라고 하였고,

馬·景岳·張·白話·校釋은 “日行은 고인들이 태양이 지구둘레를 회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日行이라고稱한 것이다. 二十八脈은 手足三陰三陽十二經에 12脈이 있어서 左右 양측을 합하여 24脈이 되고, 여기에 陰蹻, 陽蹻, 任脈, 督脈 각 하나씩을 합하면 모두 28脈이 된다. 漏水下百刻에서 漏刻은 古代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그 構造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서로 비슷하다. 『辭海』에 고대에 시간을 계산하는 기구로, 銅으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밑바닥에 하나의 구멍을 뚫고, 항아리 가운데에 箭(대나무살)을 세우고 그 箭 위에 度數를 새긴다. 항아리 속의 물이 새서 점차 줄어들면 箭 위에 새긴 눈금도 차례로 드러나므로 시간을 알 수 있다. ... 그 방법은 총 100刻으로 晝夜를 구분하였는데 冬至엔 낮에 40刻이 줄어들고 밤에 60刻이 줄어들며, 夏至에는 반대로 되며, 春秋엔 밤낮이 二分되어 각각 50刻이 된다고 하였다. 古代의 시간을 계산하는 표준은 모두 100刻으로 하루 밤낮의 시간을 삼았다. 그 計算方法은 每刻을 60分으로 나누어 100刻이면 모두 6000분이 되니, 이 6,000분을 하루 밤낮의 12時辰으로 나누어 배분하면 每 1時辰은 각각 500분이 되는데, 이것을 刻으로 절합하면 8刻20分(60分×8刻+20分=500分)이 된다. 따

이니 周天之星分四方하여 每方各有七宿하니 東方七宿는 是角亢氐房心尾箕요 北方七宿는 是斗牛女虛危室壁이요 西方七宿는 是奎婁胃昂畢觜參이요 南方七宿는 是井鬼柳星張翼軫이니 共合二十八宿라 天周二十八宿는 指天體運行環周于二十八宿之間이라 人氣行一周는 是指經脈之氣一晝夜在人身運行五十周次요 千八分은 指日行二十八宿하고 每宿三十六分이니 相乘之數爲一千零八分이라

5) ○楊: 日行二十八分에 人經脈一周하니 言八分者는 誤也니 以上文會之면 可知也라 以二十八脈氣之周身으로 上應二十八宿라 漏水之數와 晝夜之分이 俱周遍이라

라서 하루는 96刻240分(8刻20分×12時辰)이 되는데, 240분은 또 4刻(240分÷60分=4刻)이므로 합하여 100刻이 되는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考察】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에서 楊은 千八分

6) ○馬: 人之脈氣가 其晝夜一周도 亦合此一千八分之數 而日之所行者는 已周二十八宿라 正以人之經脈이 上下降에 左右前後 共二十八脈이니 蓋十二經有十二脈 而左右相同하니 則爲二十四脈이요 加以陽蹻陰蹻督脈任脈하면 共計二十八脈이라 其脈總計長短之數는 凡手之三陰三陽과 足之三陰三陽과 兩蹻督任이 周身하여 共有一十六丈二尺이니 上應天之二十八宿하고 下應漏水百刻하여 以分爲晝夜運行之度也라 ○景岳: 人之經脈十二가 左右相同하니 則爲二十四脈이요 加以蹻脈二와 任督脈二하면 共爲二十八脈하여 以應周天二十八宿하고 以分晝夜之百刻也라 ○張: 日麗天而遠地一周도 亦行二十八宿之度分하고 人之經脈은 上下左右前後共計二十八脈이니 蓋手之三陰三陽과 足之三陰三陽이 上下左右 共計二十四脈이요 并左右之兩蹻脈과 前之任脈과 後之督脈하여 通共二十八脈이 周身十六丈二尺하고 爲五十榮하여 以應二十八宿하고 以終漏下百刻하고 以分晝夜라 ○白話: 日行은 卽地球繞日運轉의 現象이나 古人이 當時以爲是日在運轉 故로 通稱爲日行이라 二十八脈은 是指手足三陰三陽十二條經脈이 左右各一이니 共計二十四脈이요 再加上任脈督脈各一과 以及左右의 蹻脈하여 合共二十八脈이라 漏水下百刻은 銅壺滴漏니 是古代一種計算時間의 器具라 其構造의 式樣은 歷代雖有不同이나 但主要是用銅壺貯水하여 水滴下漏于受水壺하고 壺上有箭하여 標明時刻하여 作爲計時器라 古代의 計時標準은 都是以一百刻으로 爲一晝一夜의 時間이라 它的 計算方式은 據周禮總義하니 每刻을 分爲六十分하니 一百刻은 共計六千分이요 將這個數字平均分配于十二時辰하면 每一時辰은 各得五百分이요 以五百分으로 按每刻의 六十分去除하면 也就是每一時辰은 等于八刻二十分이라 在一天中에 計有九十六刻二百四十分이요 二百四十分은 等于四刻이니 合共一百刻이라 ○校釋: 日行은 古人이 以爲太陽繞地球轉 故로 稱日行이라 二十八脈은 手足三陰三陽十二經에 有十二脈하여 左右兩側合二十四脈이요 加陰蹻陽蹻任脈督脈各一하여 共合二十八脈이라 漏水下百刻은 漏刻이 是古代計時의 儀器니 其構造歷代各有不同 而道理相似라 辭海에 古計時之器也니 以銅壺盛水하고 底穿一孔하고 壺中立箭하고 上刻度數라 壺中水가 以漏漸減하면 箭上所刻도 亦以次顯露하니 卽可知時라 ... 其法總以百刻으로 分于晝夜하면 冬至엔 晝漏四十刻하고 夜漏六十刻하며 夏至則反之하며 春秋엔 二分晝夜하여 各五十刻이라 하니라 古代의 計時標準은 都是以一百刻으로 作爲一晝夜의 時間이라 其計算方法은 每刻을 分爲六十分하여 一百刻이면 共計六千分이요 將六千分으로 平均分配于一晝夜의 十二個時辰하면 每一時辰은 各得五百分이요 折合八刻二十分이니 所以一晝夜는 爲九十六刻二百四十分이로래 而二百四十分은 又等于四刻이니 合共一百刻이라

이 실체는 1000분인데, 36宿를 곱하기 때문에 8분이 남은 것이다. 宿마다 거리가 35분과 7분의 5라면 1000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를 下文에 脈氣가 一周할 때에 태양은 20분을 운행하고, 二周할 때에 태양은 40분을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태양이 하루에 총 1000분을 운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下文의 ‘二十五分’, ‘四十分’이 『甲乙經』에는 ‘二十分有奇’, ‘四十分有奇’로 되어 있고, 많은 注釋書에 매 宿간 거리를 36分이라고 보고 28宿×36分=1008分으로 계산한 것을 볼 때 楊이 1000分이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五十營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해 말하기를, 天은 28宿를 한 바퀴 돌고, 한 宿의 거리는 36分이므로 人氣가 한 바퀴 周行하면 1008分이 됩니다. 태양은 28宿를 운행하고, 인체의 經脈은 上下, 左右, 前後 28脈이 전신을 16丈2尺을 주행하여 28宿와 相應하고, 물시계는 100刻이 되어 晝夜로 구분됩니다.

제2장 營氣는 一晝夜 13,500息에 전신을 50회 周行

【原文】

故로 人一呼에 脈再動하고 氣行¹⁾三寸하며 一吸에 脈亦再動하고 氣行¹⁾三寸하니 呼吸定息에 氣行¹⁾六寸이요 十息에 氣行六尺²⁾하고 日行二分이라 二百七十息에 氣行十六丈二尺하고 氣行交通于中³⁾하야 一周于身하니 下水⁴⁾二刻이요 日行二十五分⁵⁾이라 五百四十息에 氣行再周于身하니 下水四刻이요 日行四十分⁶⁾이라 二千七百息에 氣行十周于身하니 下水二十刻이요 日行五宿二十分⁷⁾이라 一萬三千五百息에 氣行五十營于身하니 水下百刻이요 日行二十八宿니 漏水皆盡하고 脈終⁸⁾矣라

【校勘】

1) 氣行: 『難經』 一難에는 ‘脉行’으로 되어 있다.

2) 氣行六尺: 『甲乙經』 卷一第九에는 ‘脈行六尺’으로 되어 있고, 『醫學綱目』 卷一陰陽에는 이 다음에 “二十七息 氣行一丈六尺二寸” 12字가 더 있는데, 『校釋』과 『語譯』은 이것이 옳다고 보았다.

3) 氣行交通于中: 『素問·八正神明論』의 王冰注에는 이 6字가 없다.

4) 下水: 『靈樞·衛氣行』에는 ‘水下’로 되어 있고, 『類經』의 註釋과 본편의 王冰注도 모두 ‘水下’로 되어 있다.

5) 二十五分: 『太素』 卷十二 營五十周에는 ‘二十分’으로 되어 있고, 『甲乙經』에는 ‘二十分有奇’로 되어 있다.

6) 四十分: 『甲乙經』에는 ‘四十分有奇’로 되어 있다.

7) 二十分: 『甲乙經』에는 ‘二百十分有奇’로 되어 있다.

8) 脈終: 『甲乙經』에는 ‘脈已終’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呼吸定息: 한번 呼吸이 끝나고 다음 번 呼吸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때를 말한다.

【較註】

[1] 人一呼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氣行六寸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

楊은 “한번 숨쉬는 사이에 태양의 운행은 1분이 못되므로 日行의 數를 말하지 않았다. 1息에 6寸을 운행하니 10息이면 6尺을 운행한다. ‘日行二分’의 二分은 二十七分之四分을 말한다. 人氣는 10息에 運行이 1분이 안되고, 13息半이라야 1분이 된다.”⁷⁾라고 하였고,

馬·景岳·張·白話는 “인체의 宗氣는 胸中에 쌓여서 呼吸을 행하고 經脈을 소통시킨다. 1呼1吸이 1息이 되는데 이때 經脈의 氣는 6寸을 운행한다. 10息에 氣는 6尺을 운행한다. 그 사이 태양이 운행하는 數는

7) ○楊: 一息之間에 日行未一分 故로 不言日行之數라 一息에 六寸이니 十息故로 六尺也라 二分은 謂二十七分之四分也라 人氣十息에 行亦未一分也요 十三息半則一分矣라

매일 태양은 1000분을 운행하므로, 13,500息으로 나누면 매 10息에 태양은 단지 7釐4毫6絲6忽不盡數를 운행한다(1008÷13500=0.074666...). 그러므로 여기에 日行二分이라고 한 것은 오래 전해오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다. 1008八을 50으로 나누면 每一周次에 태양은 20分1釐6毫를 운행하고 또한 氣는 16丈2尺을 운행한다. 그러므로 氣가 1丈6尺2寸을 운행하는 것은 每 한 바퀴의 10분의 1이니 또한 태양은 2分과 1釐6絲를 운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다면 ‘日行二分’은 氣가 1丈6尺2寸을 운행할 때를 두고 말한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2]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于中 一周于身 下水二刻 日行二十五分

楊·馬·景岳·張·白話·校釋은 “이렇게 추산하면 135息에 脈은 8丈1尺을 운행하고 물시계의 물은 1刻이 줄며 태양은 10分6釐를 운행한다. 270息에 脈은 16丈2尺을 운행하고 氣가 몸속을 상하좌우로 운행하여 전신을 한 바퀴 주행하니, 그때 물시계는 2刻을 가리키며 태양은 20分1釐2毫를 운행한다. 생각건대, 正文

8) ○馬: 人一呼에 脈再動하고 其脈氣行三寸하며 一吸에 脈亦再動하고 其脈氣行三寸하니 呼吸總爲一息 則其脈氣行六寸이라 積至十息則其脈氣行六尺하고 而天之日은 其行爲七釐五毫이라 按正文에 云二分이라하야는 今細推之면 其所謂二分者는 誤也라 假如二分則百息에 當行二十分하고 千息에 當行二百分하고 萬息에 當行二千分하니 加三千五百息에 又當行七百分이라 原數止得一千八分이로대 今反多得一千六百九十二分하니 想此經向無明注하야 遂致誤傳未正이라 今考其數하야 當云日行七釐半 則一萬三千五百息이 正合日行一千八分之數也라 ●景岳: 人之宗氣는 積於胸中하야 以行呼吸而通經脈이라 凡一呼一吸이 是爲一息이니 脈氣行六寸이라 十息에 氣行六尺이라 其日行之數는 當以每日千八分之數爲實이니 以一萬三千五百息爲法除之면 則每十息에 日行止七釐四毫六絲六忽不盡하니 此云日行二分者는 傳久之誤也니 下放此라 ○張: 故로 人一呼에 脈再動하고 氣行三寸하며 一吸에 脈亦再動하고 氣行三寸하니 呼吸定息에 氣行六寸하고 十息則氣行六尺矣라 ○白話: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은 此段文義不能銜接하니 若非誤寫면 恐有脫簡이라 似應補加二十七息氣行一丈六尺二寸等句하면 卽十息에 氣行六尺하고 二十七息에 氣行一丈六尺二寸이니 始較完備라 因根據五十周的循行하면 爲日行一千零八分이라 一千零八을 用五十去除면 則每一周次에 爲日行二十一分一釐六毫요 亦爲氣行十六丈二尺이라 所以氣行一丈六尺二寸은 爲每一環周的十分之一이니 也就是適當日行二分另一毫六絲라 由此可見이면 日行二分은 是指氣行一丈六尺二寸而言이라

에 ‘二十五分’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一釐二毫를 五分으로 잘못 傳寫한 것 같다. 만약 이 數를 근거로 하면 下文에 五百四十息에 水下四刻하고 ‘五十分’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니, ‘四十分’이라고 한 것과 맞지 않는다. 또 25분을 근거로 추산하면 13,500息에 물시계는 100刻이고, 태양은 1250분을 운행해야만 하니 原數 보다 240分 가량이 많다.”⁹⁾라고 하였다.

[3] 五百四十息 氣行再周于身 下水四刻 日行四十分 楊·馬·景岳·張·校釋은 “氣가 두 바퀴를 운행하면 脈이 운행하는 길이는 32丈4尺이 되고, 태양은 반드시 40分3釐2毫를 운행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上文에 ‘二十五分’이라고 한 것은 너무 많고, 本節에 ‘四十分’이라고 한 것은 너무 적으니, 이것은 착오가 있다는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4] 二千七百息 氣行十周于身 下水二十刻 日行五

9) ○楊: 十息에 六尺 故로 二百七十息에 氣行一百六十二尺이요 又日行二十分者는 十息에 得二十七分之二十이니 百息에 得二百하고 二百息에 得四百하고 二百七十息에 得五百四十分하야 以二十七로 除之則爲二十分矣라 ●馬: 由是而悉推之면 則一百三十五息에 脈行八丈一尺하고 水下一刻하며 日行十分六釐라 二百七十息에 脈行十六丈二尺하고 氣行交通於中하야 而一周於身하니 其水下計二刻하며 日行二十一分一釐二毫라 按正文에 曰二十五分者는 蓋誤寫一釐二毫爲五分也라 若據此數면 則下文五百四十息에 水下四刻하고 當云五十分하리니 不應曰四十分이라 且據二十五分而推之면 則一萬三千五百息에 水下百刻하고 當得一千二百五十分하니 比原數하야 多得二百四十二分也라 ○景岳: 凡一百三十五息이 水下一刻之度也니 人氣當半周於身하야 脈行八丈一尺이라 故로 二百七十息에 氣行於身一周요 水下當二刻이요 日行當得二十一分一釐六毫爲正이라 ○張: 二百七十息에 氣行十六丈二尺하고 交通於二十八脈之中하야 爲一周於身하니 乃水下二刻이요 而日行二十分有奇矣라 ○白話: 日行二十五分은 這是每一環周所需的日行分數니 據一千零八除五十來計算하면 當爲二十一分一釐六毫니 所以原載二十五分은 恐系傳寫之誤라 甲乙經載爲二十分有奇가 是正確的이라 ○校釋: 日行二十分有奇는 此指每一環周所需的日行分數니 按五十周與一千八分之關係計算하면 當爲二十一分一釐六毫라 故로 曰日行二十分有奇라

10) ○楊: 倍一周身之數라 ○馬: 至五百四十息하면 其脈氣當再周於身하니 水下四刻이요 日行四十分二釐二毫라 正文에 缺二釐二毫라 ●景岳: 氣行二周면 脈行三十二丈四尺이요 日行當得四十分三釐二毫爲正이니 上文言二十五分者는 太多하고 本節言四十分者는 太少하니 此其所以有誤也라 ○張: 五百四十息에 氣行再周於身하니 乃水下四刻이요 日行四十分有奇矣라 ○校釋: 日行四十分은 依上所述하면 當是四十分三釐二毫니 四十分은 乃其概數라

宿二十分

楊·馬·景岳·張·白話는 “2700息이면 그 脈氣는 전신을 10번 周行하므로, 물시계는 20刻을 나타내고 태양은 5宿21分6釐를 운행하게 된다. 正文에는 ‘一分六釐’가 누락되었다.”¹¹⁾라고 하였다.

[5]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

楊·馬·景岳·張은 “이것은 인체가 하루 밤낮으로 숨쉬는 數이며, 氣가 28脈의 運行을 한번 마친 것이니, 별자리와 물시계로 더불어 서로 한 바퀴를 마치는 것이다. 13,500百息에 氣는 전신을 50바퀴 운행하니 이에 물시계는 100刻이 되고, 태양은 28宿를 운행하므로 1008分이 된다. 물시계의 물방울도 모두 떨어지고 經脈도 50바퀴 運行을 마치게 된다.”¹²⁾라고 하였다.

【考察】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은 文義상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馬·景岳·白話 등은 “1008分을

13,500息으로 나누면 매 10息에 태양은 단지 7釐4毫6絲6忽 남짓을 운행한다(1008÷13500=0.074666...). 그러므로 ‘日行二分’은 傳寫시에 잘못된 것이다. 每一周次에 태양은 20分1釐6毫(1008分÷50周=20.16分)를, 氣는 16丈2尺을 운행한다고 보면 ‘日行二分’은 氣가 1丈6尺2寸을 운행할 때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 『醫學綱目』에는 ‘十息氣行六尺’의 아래에 “二十七息 氣行一丈六尺二寸” 12자가 더 있는데, 校釋과 郭¹³⁾은 이것이 따랐다. 1丈6尺2寸은 16丈2尺의 10%에 해당되니 ‘日行二分’은 20分1釐6毫의 10%인 ‘日行二分一毫六絲’의 대략이며 270번 호흡할 때의 수치이므로, “二十七息 氣行一丈六尺二寸” 12자를 삽입하면 文義가 맞는다.

“二百七十息 … 日行二十五分”에서 ‘二十五分’을 楊은 28宿의 총길이를 1000分으로 보아 50으로 나누어서 ‘二十分’이라 하였고, 『甲乙經』에는 ‘二十分有奇’로 되어 있는데, 馬·景岳·張·醫學綱目·白話 등에도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1008分을 근거로 계산하면 ‘二十分一釐六毫(1008÷50=20.16)’가 되므로 原文의 ‘二十五分’은 잘못된 것이고, 『甲乙經』의 ‘二十分有奇’가 정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二十五分’을 ‘二十分一釐六毫’나, ‘二十分有奇’로 고쳐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五百四十息 … 日行四十分”에서 ‘四十分’이 『甲乙經』에는 ‘四十分有奇’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四十分三釐二毫’가 된다. 따라서 ‘四十分’을 ‘四十分三釐二毫’나, ‘四十分有奇’로 고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二千七百息 … 日行五宿二十分”에서 ‘五宿二十分’이 『甲乙經』에는 ‘二百十分有奇’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의 방식으로 환산하면 ‘五宿二十一分六釐’가 된다. 따라서 ‘五宿二十分’을 ‘五宿二十一分六釐’나, ‘二百十分有奇’로 고쳐야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直譯】

그러므로 인체가 一呼에 脈이 두 번 박동하고 氣

11) ○楊: 十倍一周 故曰 日行二百分也라 宿各三十六分 故曰 當五宿二十分也라 由此言之 故曰 知五十周에 以一千分爲實也라 ●馬: 至二千七百息하면 其脈氣十周於身하니 水下二十刻이요 日行五宿二十一分六釐라 正文에 缺一分六釐라 ○景岳: 氣行十周면 脈行一百六十二丈이요 日行當得五宿二十一分六釐爲正이라 ○張: 二千七百息에 氣行十周於身하니 乃水下二十刻이요 而日行五宿二十分이니 計二百分有奇矣라 ○白話: 日行五宿二十分은 這是指氣行十周의 時間이라 每宿三十六分이니 五宿는 就是一百八十分이요 加上二十分하면 合計只有二百分이라 但因每周의 日行是二十分一釐六毫하면 所以氣行十周에 日行應該는 是五宿二十一分六釐라

12) ○楊: 此는 人晝夜之息數요 氣行二十八脈之一終이니 與宿漏로 相畢이라 ○馬: 自此以下는 當云五千四百息에 氣行二十周於身하니 下水四十刻이요 日行十一宿七分二釐라 又當云八千一百息에 氣行三十周於身하니 下水六十刻이요 日行十六宿二十八分八釐라 又當云一萬八百息에 氣行四十周於身하니 下水八十刻이요 日行二十二宿一十四分四釐라 積至一萬三千五百息하면 氣行五十營於身하니 水下百刻이요 日又行五宿二十一分六釐니 則共行二十八宿요 其漏水皆盡而脈氣終矣라(22宿와 14.4分 + 5宿와 21.6分 = 28宿) ○景岳: 此는 一晝夜百刻之總數니 人氣도 亦盡而復起矣라 ●張: 一萬三千五百息에 氣行五十營於身하니 乃水下百刻이요 而日行二十八宿니 計一千零八分也라 漏水皆盡而脈終於五十營矣라

13)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81. p.166.

는 3寸을 운행하며 一吸에 脈이 또 두 번 박동하고 氣는 3寸을 운행하므로, 한번 호흡하는 사이에 氣는 6寸을 운행한다. 10息에 氣는 6尺을 운행하고 태양은 2分을 운행한다. 270息에 氣는 16丈2尺을 운행하고 氣가 經脈 가운데를 상하로 교류하고 내외로 관통하여 전신을 한 바퀴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2척이 내려오고, 태양은 25分을 운행한다. 540息에 氣는 전신을 두 번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4척이 내려오고, 태양은 40分을 주행한다. 2700息에 氣는 전신을 10회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20척이 내려오고 태양은 5宿20分을 운행한다. 13,500息에 氣는 전신을 50바퀴 주행하므로 물시계의 물은 100척이 되고 태양은 28宿를 주행하니 물시계의 물이 모두 떨어지고 經脈도 50營을 마치게 됩니다.

제3장 50營을 運行하는 길이는 810丈

【原文】

所謂交通者 并行一數也라 故로 五十營備⁽¹⁾면 得盡天地之壽⁽²⁾矣니 凡行⁽¹⁾八百一十丈也라

【校勘】

1) 凡行: 『太素』卷十二 營五十周와 『甲乙經』卷一 第九에는 ‘氣凡行’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備: 成也, 이를 비
- (2) 壽: 久也, 오렐 수

【較註】

[1] 所謂交通者 并行一數也

楊·馬·景岳·張은 “交通이라는 것은 皮膚經脈의 宗氣가 內外로 交通하여 100刻의 度數를 함께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¹⁴⁾라고 하였다.

14) ○楊: (所謂交通者 并行一數也) 謂二手足脈氣并行하여 而以一數之니 卽氣行三寸者는 兩氣各三寸也요 而二氣之行이 相交於中 故로 曰交通이라 上有交通之文 故로 云所謂也라 ○馬: 吾前所謂氣行交通於中一周於身者는 并五十營而皆如

[2] 五十營備 得盡天地之壽矣 凡行八百一十丈也
楊은 “壽는 곧 終의 의미이다. 天地는 28宿와 물시계 100刻으로 한 주기를 마치는 것이다. 810丈을 운행한다는 것은 곧 28脈이 서로 연속하여 50회를 주행하는 길이를 말한다.”¹⁵⁾라고 하였고,

馬·景岳·張은 “50營의 度數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잘못됨이 없도록 하면 壽命 또한 無窮하므로, 天地의 壽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10丈은 脈氣가 밤낮으로 50회를 주행하는 總數이다.”¹⁶⁾라고 하였다.

【考察】

“五十營備 得盡天地之壽”에서 ‘壽’를 楊은 ‘終’의 의미로 보았으나, 馬·景岳 등은 ‘壽命’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馬·景岳 등은 50營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天壽를 다 마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楊은 50營의 운행이 끝나면 天地의 28宿와 100刻의 시간이 한 周期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 經脈이 運行하는 총 길어도 810丈이 된다는 내용과 연결을 시켰다. 또한 郭¹⁷⁾은 ‘壽’를 ‘壽’와 통용한다. 『儀禮·鄉射禮』의 鄭注에 “壽, 算也”라 하였는데, 算은 ‘數’의 의미가 있으므로, ‘壽’를 ‘數’로 해석하여 楊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直譯】

이른바 交通이라는 것은 한 바퀴를 운행하는 總數입니다. 그러므로 50營을 운행하면 天地의 壽를 다 마

始時一周之數也라 ○景岳: 此는 釋上文交通二字之義니 并行一數는 謂并二十八脈通行一周之數也라 ●張: 所謂交通者는 謂皮膚經脈之宗氣가 外內交通하여 而并行一百刻之數也라

15) ○楊: 壽는 卽終之義也라 天地는 以二十八宿下水百刻으로 爲一終也라 (凡行八百一十丈은) 卽二十八脈이 相續五十周之數也라

16) ○馬: 五十營備者는 必無病而得以盡天地所賦之壽矣요 否則如根結篇之所謂不應數者名曰狂生也라 ●景岳: 使五十營之數로 常周備無失하면 則壽亦無窮이라 故로 得盡天地之壽矣라 八百一十丈은 脈氣周行晝夜五十營之總數也라 ○張: 夫天主氣하고 地主血脈 故로 五十營而外內之氣行周備하면 斯得盡天地之壽矣라 凡經脈外內之宗榮이 皆行八百一十丈也라

17)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81. p.166.

칠 수 있습니다. 무릇 脈氣는 총 810丈을 운행합니다.

IV. 意 譯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에게 氣가 인체의 經脈內를 50바퀴 운행하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듣기를 청합니다.

岐伯이 대답해 말하기를, 天體의 운행은 28宿를 등글게 도는 것이고, 매 한 별 사이의 거리는 36분이며, 인체의 經脈의 氣가 하루를 운행하면 천체가 태양을 운행하는 1008분에 상당합니다. 하루 중에 태양은 28宿를 운행하고, 인체의 上下, 左右, 前後에 분포된 28經脈이 전신을 한 바퀴 운행할 때 氣는 총 16丈2尺을 행하여 꼭 맞게 28宿와 相應하고, 물시계는 100刻을 표준으로 삼고 晝夜로 구분하여 매번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인체는 한번 내설 때 脈이 두 번 박동하고 氣는 3寸을 운행하며, 한번 들이설 때 脈이 또 두 번 박동하고 氣는 3寸을 운행하니, 한 呼吸하는 사이에 氣는 6寸을 운행합니다. 10번 호흡하면 氣는 6尺을 운행하고, 만약 270번 호흡하면 氣는 1丈6尺2寸을 운행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태양은 2分零1毫6絲를 운행합니다. 270번 호흡하면 매 호흡마다 6寸을 운행하므로 氣는 16丈2尺을 운행하고, 이 단계에서 氣가 經脈 가운데를 상하로 교류하고 내외로 관통하여 정확하게 전신을 한 바퀴 循環하는데, 물시계의 2刻에 해당하며 태양은 20分零1釐6毫를 운행합니다. 540번 호흡하면 氣는 전신을 두 바퀴 도는데, 이때 물시계도 정확히 4刻이며, 태양은 40分3釐2毫를 운행합니다. 2,700번 호흡하면 氣는 전신을 10바퀴 도는데, 그 때 물시계는 정확히 20刻이며, 태양은 5宿21分6釐를 운행합니다. 13,500번 호흡하면 脈氣는 전신을 50바퀴 도는데, 이 시간에 물시계는 정확히 100刻을 내려오며, 태양은 28宿를 운행하므로, 100刻의 물시계도 물이 다 떨어지고, 經脈의 氣도 바로 50周의 運行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交通의 의미는 전신의 28脈을 한 바퀴를 운

행하는 總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經脈이 50바퀴를 순환하는 정상상태를 유지하면 하늘이 내려준 天壽를 다할 수 있습니다. 氣가 50바퀴 운행할 때의 總數도 체내에서 810丈을 運行하게 됩니다.

IV. 結 論

諸家の 註釋書を 較列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註釋을 參考하여 懸吐·國譯하고 이를 考察한 결과를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장의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句節에서 楊이 ‘千八分’을 ‘一千分’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제2장의 “十息氣行六尺 日行二分” 句節에서 ‘日行二分’은 傳寫시에 오류로 여기거나, ‘十息氣行六尺’의 아래에 “二十七息 氣行一丈六尺二寸”12字를 삽입하여야 文義가 통한다.
3. 제2장의 “二百七十息 … 日行二十五分” 句節에서 ‘二十五分’을 ‘二十一分一釐六毫’나, ‘二十分有奇’로 고쳐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4. 제2장의 “五百四十息 … 日行四十分” 句節에서 ‘四十分’을 ‘四十分三釐二毫’나, ‘四十分有奇’로 고쳐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5. 제2장의 “二千七百息 … 日行五宿二十分” 句節에서 ‘五宿二十分’을 ‘五宿二十一分六釐’나, ‘二百十分有奇’로 고쳐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參 考 文 獻

1.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90.
3.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卷二 醫經註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馬蒞,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7.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81.
8. 皇甫謐 撰. 黃帝針灸甲乙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5.
9. 王冰 撰.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10. 陳璧琉, 鄭卓人.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1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